

예술과 기술의 만남 'ACT 페스티벌'

아시아문화전당 다음달 3~6일 '마이크로 유토피아' 주제 창작자·전문가 '교류의 장'

#1. AI가 음악과 위성이미지를 딥 러닝을 통해 경계의 간섭에 대해 질문한다. 또한 그 맥락을 해체해 가상의 풍경을 만들어낸다.

#2. 건축물과 잔해, 자연이 뒤엉켜 새로운 형상을 생성하는 퍼포먼스는 건축학적 관점에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색하게 해준다.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 한마당, ACT 페스티벌에서 볼 수 있는 풍경이다. ACT는 Arts & Creative Technology를 의미한다. 즉 예술과 기술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2022 ACT 페스티벌이 오는 11월 3일부터 6일까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ACC) 문화창조원에서 펼쳐진다. 아시아와 세계의 예술과 기술 관련 분야 창작자와 전문가들이 함께 미래지향적인 아이디어를 교류하는 축제의 장이다.

올해는 다양한 기술이 펼쳐질 미래를 상징하는 '마이크로 유토피아'에 초점을 맞췄다. 전시를 비롯해 강연, 대담, 오디오비주얼 퍼포먼스 등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예술적 경험을 선사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ACC는 융복합 콘텐츠의 창작자 결과물을 전시로 선보인다. 미디어아트 랩 외벽영상(미디어파사드) 작품 '디지털 공간의 창'이 개막과 함께 펼쳐지며 '지구의 시간'을 비롯한 미디어얼 융복합 콘텐츠 공모 '벽 너머의 공간' 등은 축제에 앞서 전시를 진행하고 있다. 관객과 토크도 마련돼 있다.



오디오비주얼퍼포먼스를 선보이는 로이치 쿠로카와의 '서브어셈블리'.

(ACC 제공)

11월 3일 복합전시2관에서는 신보슬 토탈미술관 책임큐레이터가 '보물선 3.0: 비밀을 여는 시간 마이크로 토크'를 진행한다. 남도문화유산 소재의 융복합 콘텐츠와 미디어아트의 창작자 작품의 소개이스 전시 기획과 관련 내용을 공유할 예정이다.

신기술 기반 콘텐츠 랩 참여작가인 스튜디오 엠버스 703은 '메타-천사의 섬'을 주제로 토크를 펼친다. 신안 유물선의 메타버스 공간의 확장 가능성, 웹 3.0시대 예술가의 역할 및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미래에 관한 논의를 공유할 계획이다.

11월 4일에는 윤나라 인하대 문화콘텐츠 문화경영학과 교수가 예술 활동과 기술의 관계, 알고리즘적 사고 등을 모티브로 강연한다. 미디어아트랩 참여작가인 조영각은 '초거대 인공지능을 이용한 이미지/사운드 생성에 대하여'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또한 3-5일 오후 7시부터 만날 수 있는 시청각 공연은 축제를 더욱 풍성한 시간으로 채워줄 것으로 보인다. '공존의 관계망'을 주제로 자연과 인간, 예술과 기술의 관계를 고찰해볼 수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오디오비주얼 작가 로이치 쿠로카와의 '서브어셈블리', 슈니트 & 지안루 카시발디의 '스캔 오디언스, 태스트그룹의 '태스트.퍼포 [크로스오]' 등은 기술과 예술, 과학 등을 다채롭게 생각해볼 수 있는 작품들이다.

한편 사운드·미디어 아티스트와 함께 작업 과정을 배우고 탐구를 실험하는 공동 작업도 진행된다. '손수 제작(DIY) 신디사이저 만들기', '노래가 될 수 있는 것'은 선착순으로 ACC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모든 행사 관람은 무료이며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길 위에서 만나는 광주 문화·역사

광주문화도시협, 다음달 1~15일 문화강좌

'길 위에서 만나는' 꾸밈스러운 광주 문화와 역사를 주제로 시민문화강좌가 열린다.



윤만식 고문 김경수 소장

광주문화도시협의회(상임대표 박병주)는 오는 11월 1일부터 15일까지 (매주 화·목, 오후 3시) 5·18기록관에서 문화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강좌는 의향의 역사 및 숨겨져 있는 지역문화의 가치와 숨결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기획했으며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김덕진), 광주장애인문화협회(회장 정진삼), 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공동대표 엄수경)가 공동 주관한다.

구체적인 강좌는 김경수 향토지리연구소장이 '광주의 처음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이어 '광주 나무와 신화' 엄수경(광주전남문화유산연대 공동대표), '전라도 말의 힘' 지정남(배우), '민족문화운동과 시대정신' (윤만식 한국민족협회 고문)이 진행한다.

마지막 11월 15일에는 광주·전남 이야기의 흔적과 뿌리를 찾아서'를 주제로 김경수 소장의 해설과 함께하는 문화탐방이 펼쳐진다. 모집 인원은 선착순 40명이며 수강료는 2만원. 희망자는 오는 31일까지 전화(062-234-2727)로 접수하면 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김문순 시낭송가, 시인 등단

영암 출신... '열린시학' 가을호 애완돌 등 3편

영암 출신 김문순 시낭송가가 '열린시학' 가을호 신인 작품상 시 부문으로 등단했다. 수상작은 '애완 돌' 등 3편.



이처럼 어린 시인은 심사평에서 "애완 돌은 타인과의 결별 이후 자라난 피폐한 감정 상황을 '애완 돌'을 통해 다스리고 그 돌과 상호작용을 하거나 위로를 받으면서 '애완'이 갖는 의미를 표출하는데 관계의 순환성 내지는 동일화까지 내다본 점이 좋았다"고 평했다.

김문순 시인은 당선소감에서 "시의 바깥을 맴돌던 지리한 날들, 시는 좀처럼 내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지만 인내하며 두박두박 차분하게 걸어가야 빛을 얻을 수 있는 길임을 깨닫게 되었다"며 "더 무리없이 단단해지도록 시의 근육을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문순 시인은 전남대 대학원 석사과정을 졸업했으며 재능시낭송가로 활동하고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페라 '투란도트'를 만나다

시립오페라단 정기공연 다음달 26~27일 문화전당 예술극장1

생애 12편의 오페라 작품을 남긴 푸치니가 '이전까지 내 오페라들은 있어도 좋다'고 자신했던 결작이 11월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립오페라단이 제11회 정기공연 '투란도트'를 11월 26일부터 27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1에서 연다. (26일 오후 5시, 27일 오후 3시)

'투란도트'는 원작인 카를로 고치의 동화를 각색한 작품으로 고대 중국을 배경으로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를 담고 있다.

타타르인을 증오하는 중국 공주 투란도트가 청혼자들에게 수수께끼를 내 문제를 풀 사람과 결혼하는 대신 풀지 못하면 처형시킴을 조건으로 건다. 타타르국의 왕자 칼라프는 수수께끼에 도전하고 공주의 마음을 얻게 돼 두 사람은 모두의 축복 속에 사랑의 결실을 맺는다. 작품은 푸치니의 생애 마지막 오페라이자 역

작으로, 푸치니가 만든 열두편의 오페라 중 가장 웅장하고 화려하다는 특징이 있다. 푸치니의 후두암 투병으로 미완에서 끝났던 작품을 제자 프랑코 알파노가 스케치를 바탕으로 완성시켰다.

이번 공연은 광주시립오페라단과 (재)대구 문화예술진흥원 오페라 하우스의 합작으로 2019년 시작한 '오페라 달빛동맹'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앞서 지난 9월 제19회 대구국제오페라축제에서 선보여졌으며 오는 11월 광주에서 다시 한번 펼쳐질 예정이다.

예술감독으로는 전남대학교 음악학과 박인옥 교수가, 연출에는 불가리아 국립오페라&발레극장 극장장을 맡고 있는 플라멘 카르탈로프가 참여한다. 협력연출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오페라연출 석사 졸업한 기민정이, 무대 디자인에는 임창주 정운대학교 무대예술학과 교수



박인옥 교수



플라멘 카르탈로프



이윤정

가 함께한다.

투란도트 역에는 국제 무대에서 주역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윤정과 이태리 파르마 국립음악원을 졸업한 뒤 오페라 '나비부인', '아이다' 등에 출연한 임정아가 양일 각각 무대에 오르며 칼라프 역은 풍부한 성량의 에너지를 가진 테너 윤병길이 맡는다.

공연에서는 '옛날 이 궁전에서'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등 유명 아리아를 만나볼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커다란 회전무대를 도입해

강렬한 이미지를 나타냈으며 중국 전통 악기 '공'을 사용해 동양적 멜로디와 이국적 분위기를 표현한다. 러닝타임 2시간 45분, 300여명에 달하는 작품 참여진으로 초대형 오페라의 진수를 보여준다.

예매는 티켓링크와 광주문화예술회관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V석 7만 원, R석 5만 원, S석 3만 원, A석 1만 원, 문의 062-412-2502.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